의 회 정 신

최근에 벌어진 국제 문제, 특히 닉슨의 중공 방문을 전후로 하는 국제 관계의 변천을 하나의 드라마로 비유해 본다면 대단히 흥미있는 평가를 할 수 있다. 바둑판을 가운데 놓고 공방전을 벌이는 두 사람은 현대의 의회 정신(議會精神)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릇 협상과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은 모두 의회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넓게 해석한다면 제아무리 독재적인 공산국가의 지도자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 의회 정신에 따르는 길을 택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본디 의회 정신이라는 것은 편이 갈라지고 갈라진 한 편에서서 상대방과 협상, 흥정 대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폴·터너라는 분이 쓴 〈고독에서부터의 도망〉이라는 책에 이 〈의회 정신〉이라는 장이 있다. 그가 지적하기를 서구에 있어서 현대인이 겪고 있는 고독과 가정 생활의 파탄은 다원이 말한 적자 생존의 이념 때문이며 한 가정 안에서도 부부간, 부모 자식간에 이러한 생존을 위한 〈편 가름〉을 하는 의회 정신이 서구의 가정 생활을 깨뜨렸다고 했다. 요즘 국제 정치나 국내 정치 심지어는 교회 정치, 그리고 가정 정치 안에서도 이 편 가름이라는 것이 있어서 온통 인간 관계를 깨뜨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진정한 대화나 협상을 하기에 앞서 어느 편에 서느냐 하는 것부터 정해 놓고 대화를 하니 거기에는 진정한 만남의 대화가 있을 수 없게 된다. 내가 말하는 것이 상대 편에서 내 편을 불리하게 하는데 이용하지나 않을가 하는 배려까지 하여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번 닉슨과 주은래의 대화 속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드시 수반되었으리라고 믿는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

편 가름하는데는 인정, 경제적 이해, 신의 이 모든 것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있으나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어떻게 보며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으로 좌우될 것이다. 오늘의 국제 정세, 국가 문제, 인간 문제에 대한 깊은 성찰에서 오는 현실 이해의 차이에서 진정한 편 가름이 생겨질 것이다. 목전의 이해 관계에서 뭉쳐지는 편가름이란 별로 힘이 없다. 본훼퍼가 진실을 말한다는 것의 뜻을 풀이하는 글 가운데서 이런 말을 했다. 사람이 진실을 말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현실, 인간 관계, 그리고 인간과 사물의 관계를 어느 정도 리얼하게 들여다보고 성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한다.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적에게 사로잡힌 군인이 자기 편의 군사 배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다. 그 현실 속에서는 거짓말이 정당화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한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분석, 해석을 하여서 주체적인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의회 정신 때문에 자연히 편 가름하게 되고 어느 편이 더 진실을 말하느냐 하는 것도 어느 쪽이 더 현실을 잘 파악하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결정되어진다. 의회 정신이 현대인의 인관 관계를 변질시키고 있으며 현대인은 이러한 판가름의 인간 관계 속에서 고독을 느끼는 동시에 새로운 인간 관계를 이루어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경제적인 요소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자아 이해와 현실 이해에서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동지, 친구, 동역자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연합 사업이나 에큐메니칼 운동도 지방, 교파, 써클의 장벽을 넘어서 이러한 현실 감각과 자기 이해에서 한 뜻을 가질 때에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에큐메니컬 아카이브
www.jpic.org